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林 京 福

세명대학교 의상디자인 전공 전임강사

The Effect of Body Cathexis on the Cloth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Kyung-Bock Lim

Dept. of Clothing Fashion Design, Full-time Instructor of Se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I. 서론	IV. 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1. 신체만족도
1. 신체만족도	2. 성별,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구분
2.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3. 신체만족도 집단별 의복 관심도
III. 연구방법	4. 신체만족 집단별 의복 만족도
1. 연구문제	V. 요약 및 결론
2. 측정도구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gender and body cathexis on clothing behavior (interest in clothing and clothing satisfaction/dissatisfaction).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395 college students living in Jechon.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t-test, ANOVA, two-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dy-cathexis was higher in men than women. In general,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upper body parts than lower body parts. 2)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clothing and body-cathexis. But woman showed more interest in clothing than man, therefore sex showed main effect. And there was interaction between sex and body-cathexis on interest in clothing. 3) Clothing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aesthetic/economical/practical factors. Among three satisfaction factors, body cathexis has

the main effect in economic factor, and there was no interaction. But in aesthetic factor, gender and body-cathexis showed interaction and body-cathexis showed main effect.

I. 서론

최근 들어 대중사회 속에서 인상 형성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신체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구성요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외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자신이 타인을 외모에 따라 평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타인도 자신을 외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리라는 추측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태도인 자아개념의 일부로 스스로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신체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Ryan은 자아를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구분하고, 한 집단 성원으로서의 자아를 사회적 자아, 신체만족도를 신체적 자아라고 구분한 바 있는데¹⁾ 결국 이러한 만족감이 곧 신체적 자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와 함께 위치하는 의복은 제 2의 피부로서 개인 환경의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신체적 자아를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William James같은 학자는 인간의 한 구성요소로 신체와 영혼 이외에 의복을 꼽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만족이 의복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이 사실은 신체만족도가 의복에 관련되어 자아개념 요소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라는 Sontag과 Schlater²⁾의 해석에서처럼 신체와 의복은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만족과 불만족이 의복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대해 의

복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는 의복·외모·외모 기준 간의 상관연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체에 대한 느낌이 의복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였다.³⁾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때 의복행동에는 의복에 대한 관심과 의복 구매 후 경험하는 만족 혹은 불만족의 개념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성별, 신체만족도별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대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요사이 인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남성에게도 외모 혹은 관련된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성 간의 신체만족도와 이로 인한 의복 관심 혹은 구매 후 만족감에 대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체만족도

신체는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외모의 구성요소이므로 인간은 모든 행위에 앞서 자아를 지각할 때 신체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 때 신체 이미지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어진 시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그림을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해 신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복은 여기에서 인간의 신체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분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⁴⁾ 따

- 1) Ryan, M. S., *Perception of Self in Relation to Clothing*. In M. E. Roach and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pp. 247-249), New York: John Wiley, 1965.
- 2) Sontag, M. S. and Schlater, J. 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pp. 1-8, (1982).
- 3)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 Macmillan Publishing, p. 62, 1985.
- 4) Shim, Soyeon, Kotsiopulos, Antigone and Knoll, Diane S.,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pp. 35-44, 1991.

라서 신체 이미지가 약한 사람은 의복 선택시 한계가 뚜렷한 요소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신체 이미지는 극히 개인적인 인식이어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실제 극소수임이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⁶⁾ 이러한 개인이 가지는 신체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신체만족도로 이는 신체 이미지와 유사하지만 평가적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체만족도는 신체의 여러 부분이나 신체 기능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정의된다.⁷⁾ 이는 신체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의복행동에 반영될 수 있다⁸⁾고 하였으며 Sontag과 Schlater⁹⁾도 성인에 있어서 의복과 관련된 자아개념의 요소 중 신체만족도가 가장 자주 언급된다고 하였다. 이 때 의복은 신체 불만족을 보상해 줄 수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물론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는 개인적 차이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의한 차이도 작용을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경우 15세기에 다소 비만한 체형이 만족감을 부여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특히 1980년 이후 마른 편이면서도 건강미가 있는 체형이 이상형이라 할 것이다. 이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인간의 행동에는 항상 주관선 행되므로 모든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추측케 한다.

지금까지 신체만족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는데 우선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이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¹¹⁾ 등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여성의 경우 신체 사이즈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가진다는 의미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1957년에 이루어진 Jourard와 Remy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젊은 여성집단보다 나이 든 여성집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¹²⁾ 이외에도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신체불만이 높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¹³⁾ 또한 앞의 연구에서는 신체 부위별로 보아서는 하반신과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1) 의복관심

의복에 대한 관심 혹은 흥미는 직업적 이유에서이든 비직업적 이유에서이든 의복행동에 대한 참여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의복 쇼핑을 한다든가, 외모를 실험해 본다든가 잡지를 읽는 행동 등이 포함되며, 이는 시간·금전·에너지를 이용하는 등의 태도 차원과 연결된다. 대개 의복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 많은 시간과 금전·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의복행동을 잘 하는 타인에

- 5) Compton, N. H., Image boundaries in relation to clothing fabric and design preference of a group of hospitalized psychotic women. *J. of Home Economics*, 56, Jan. pp. 40-45, 1964.
- 6)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 7) Secord, P. F. and Jourard, S. M.,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 of Consulting Psychology*, 17, pp. 343-347, 1953.
- 8) Richards, E. A. and Hawthorne, R. 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63(3), 1971.
- 9) Sontag, M. S. and Schlater, J. 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pp. 1-8, 1982.
- 10) 구자명, 이명희,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 153-163, 1994.
- 11)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pp. 31-41, 1975.
- 12)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1995.
- 13) 고애란, 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pp. 667-681, 1996.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한다고 한다.

Gurel & Gurel은 의복관심의 차원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우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있고, 외모를 실험해 보는 차원, 의복에 대한 구조적 측면의 이해, 자기 안정감의 고양, 개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보았다.¹⁴⁾ 이 중 외모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외모관리에 시간과 금전, 에너지를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자기 안정감의 고양에 있어서 자존심을 높이고 외모관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의복을 사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 연구의 결과 대개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심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자고등학교 응원단장의 의복관심과 신체만족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상관이 크지 않다는 결과¹⁵⁾가 나왔으며, 그 외에도 여대생의 신체치수와 의복 내지 유행 관심은 무관하다¹⁶⁾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특히 여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은 신체만족도에 상관없이 의복이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 의복만족도

개인의 의복행동에 있어서 만족·불만족의 개념은 기대와 실제 제품 성과간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소비자 개인의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Westbrook과 Newman¹⁷⁾은 소비자

의 만족·불만족은 개인의 감정 상태로 소비자가 제품 소유 및 사용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쾌감의 정도라고 하였으며 홍급희¹⁸⁾는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있어 기본적인 것은 비교 내지는 평가의 관점이며, 비교는 인지적 과정이지만 반응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의복은 물질적 요소이지만 만족도 자체는 심리적 경험이므로 생활의 외적 조건이 반드시 내적 만족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 대한 만족 정도나 긍정적 자아개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⁹⁾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의복을 소비하는 행동에서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의 개념 역시 상당히 주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복이 가지는 도구적 기능에서 본다면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신체의 불만족을 보완하거나 만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연구에서는 의복만족, 혹은 불만족 요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체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영윤²⁰⁾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의복만족도 및 의복이 몸에 맞는 정도에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애란²¹⁾의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McLean²²⁾의 연구결과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의 관계는 조사대상 전체에서는 관련이 없었으며 연령

-
- 14)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 15) Damhorst, M. S. and Littrell, M. A., Clothing Interests and Body Cathexis of High School Cheerleader, ACPTC Proceedings, Combined Central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pp. 38-39, 1984.
- 16) Davis, L. L., Self-Perceived Somo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ACPTC Proceedings, Combined Central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p. 250, 1985.
- 17) Westbrook, R. A. and Newman, J. W., An Analysis of Shopper Dissatisfaction for Major Household Appliance, *J. of Marketing Research*, 15(Aug), pp. 456-466, 1978.
- 18) 홍급희, 의복만족의 종적 연구-기대선행 변수에 따른 기대와 제품성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19) Haftstrom, J. L. and Dunsing, M. M.,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1973.
- 20)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1) 고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의복의 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2) McLean, F. 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 1978.

상 중년에서만 정적 상관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성아²³⁾의 연구에서도 의복만족도와 신체만족도의 정적 상관을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 Labat²⁴⁾은 신체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기성복 치수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남녀 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그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신체만족도를 성별·부위별로 비교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의복관심에 대해 성과 신체만족도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셋째, 대학생의 의복만족도에 대해 성과 신체만족도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신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 의복 관심도에 대한 부분, 의복만족도 측정부분과 개인적 사항에 대한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만족도는 Secord와 Jourard(1953)²⁵⁾가 개발한 46개의 특성을 최근의 연구에서 문항수를 적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이를 참고로 22문항의 신체만족도를 질문하였으며 부가적으로 키와 체중을 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키와 체중은 개인별 신체 충실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의복관심도에 대한 문항은 사전에 예비조사를

통해 자유응답식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을 서술하게 하여 18개를 선정하였다. 이를 다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15개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최종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의복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속성 중 선행연구^{27, 28, 29)}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선정하여 사용하였는데, 20개의 만족도에 대한 속성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사용한 만족도의 개념은 응답자에게 최근에 구입한 의복의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서술하도록 한 후, 해당 제품에 대한 사후 만족/불만족 여부를 5점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은 세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 하였으며 1996년 9월에 예비조사를 거쳐 10월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450부의 설문지 중 40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395부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적사항은 성별로는 남학생 204명, 여학생이 191명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인문계 116명, 사회계 135명, 자연계 92명과 예능계가 52명이었다. 또한 학년별로는 1학년이 128명, 2학년 115명, 3학년이 85명, 4학년이 67명이었다.

자료분석에는 요인분석,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이원변량분석, 던컨의 다중비교 등이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신체만족도

남녀 대학생의 전체적인 신체만족도를 평균을

23) 조성아,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4) Labat, K. 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 to Wear Cloth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1988.

25) Secord, P. F. and Jourard, S. M.,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Self,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7(5), pp. 343-347, 1953.

26) 이연희,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상관 연구-이화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7) 임숙자,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의복행동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8) 류은경, 의복 관여도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29) 백민숙, 청년층의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통해 비교하여 보았다. 대학생의 경우 만족하는 부위는 대개 얼굴형태, 눈, 목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3.33, 3.32, 3.31 정도의 평균을 보여주었다. 반면 불만족하는 부위는 다리, 엉덩이, 배 부위였는데 각각 평균이 2.60, 2.64, 2.68이었다. 결과적으로 상체에 비해 하체 부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신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머리카락과 눈, 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여성은 신체 사이즈를 과대 해석해서 보다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기 쉽다는 사실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키와 몸무게를 근거로 하여 확인한 신체 충실지수와 신체부위별 만족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항목이 신체 충실지수와 상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부위만족도는 신체 충실지수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신체 충실지수가 낮을수록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대·문화적 이상형이 마른 체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항목이 하체의 부위로 이러한 부분들은 항목간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체에 비해 하체부위가 신체만족도와 신체 충실지수에 관련이 될을

〈표 2〉 신체만족도, 신체충실지수의 상관관계

변인	신체만족도	신체 충실지수
신체만족도		-.06583
신체충실지수	-.06583	

보여주었다.

다음에는 전체적인 신체만족도와 신체 충실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 전체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신체 충실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적 관계에 있었다.

참고로 성별 신체 충실도의 분포를 알아보았는데 성별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개의 학생들이 정상과 허약에 각각 193명(48.8%)와 187명(47.3%)로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 성별, 신체만족도에 따른 집단구분

다음에는 의복관심도와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앞서 신체만족도와 성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집단구분의 기준은 우선 신체만족도에 따라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는데 연구대상 전체의 신체만족도 평균은 3.04였으며 이 때 표준편차는 0.5981이었다. 또한 대상자 분포도를 통해

〈표 1〉 신체부위 만족도와 신체충실지수 간의 상관관계

신체부위	배	허 리	엉덩이	다 리	몸무게	몸 매
배						
허 리	.7211***					
엉덩이	.53012***	.58272***				
다 리	.45470***	.45901***	.54732***			
몸무게	.47265***	.54758***	.43681***	.53923***		
몸 매	.51811***	.53713***	.51154***	.61442***	.63695***	
신체충실지수	-.23975***	-.19792***	-.13057*	-.11083*	-.14810**	-.10115*

*p < .05, **p < .01, ***p < .001

<표 3> 성별, 신체만족도별 집단구분

성별	남	여
신체만족도		
신체 만족(명, %)	129(32.6)	63(15.9)
신체 불만족(명, %)	75(19.0)	128(32.5)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의복만족도 구분을 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 집단을 다시 성별에 따라 이분하여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표 3).

3. 신체만족도 집단별 의복 관심도

위에 구분한 네개의 집단을 기본으로 하여 의복 관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성별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의복에 대한 관심도는 신체에 불만족하는 여학생의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신체에 불만족한 남학생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과 신체만족도의 영향에서 보면 의복관심도에는 성이 주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이 의복관심이 높지만 여성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의복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복관

<표 4> 성별/신체만족도 집단별 의복관심도

집단	남/신체 만족	남/신체 불만족	여/신체 만족	여/신체 불만족	F
의복관심도	3.25 A	2.98 B	3.24 A	3.38 A	8.09***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이 많은 것임.

***p < .001

<표 5> 의복관심도에 대한 성, 신체만족도의 영향

독립변인	의복관심도 F값
성	11.26***
신체만족도	1.60
성x신체만족도	11.41***

***P < .001

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의 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의복관심과 신체만족도는 무관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학생의 경우 신체만족도와 의복태도는 무관하며 그 이유는 남자는 신체의 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신체를 의복과는 분리시켜 보기 때문이라는 결과³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여학생의 경우, 신체 불만족시 의복을 도구적 의미에서 본다면 자아개념을 보상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반면 남성의 경우 이전에는 의복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복을 보상적 동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4. 신체만족 집단별 의복 만족도

집단별 분석에 앞서 의복만족도의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세 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30) 강혜원, *Ibid*, p. 231.

<표 6> 의복만족도 요인

요인 1 : 심미성 요인		요인 2 : 경제성 요인		요인 3 : 실용성 요인	
문 항	부하치	문 항	부하치	문 항	부하치
품질	0.69	가격	0.47	편안함, 활동성	0.39
디자인 및 스타일	0.64	착용용도의 다양성	0.47	세탁과 관리 편리성	0.40
타인의 반응	0.60	애프터 서비스	0.45	내구성 및 흡수성	0.29
개성표현	0.57	몸에 맞는 정도	0.44		
자신에게 어울림	0.56				
상표	0.56				
유행감각	0.55				
품위	0.54				
소재의 질감	0.54				
다른 옷과의 조화	0.54				
색상	0.51				
상황 적절성	0.48				
Eigenvalue	9.59		2.66		2.09
총 분산중 비율	36.93		15.88		7.07
누적 분산	36.93		52.81		59.87

<표 7> 집단별 의복만족도 요인

의복 만족도 요인	집 단				
	남/신체 만족	남/신체 불만족	여/신체 만족	여/신체 불만족	F
의복관심도 전체	3.77 A	3.55 B	3.67 A	3.66 AB	5.48**
심미성	3.80 A	3.53 B	3.76 A	3.71 A	6.64***
경제성	3.59 A	3.35 B	3.50 AB	3.43 B	4.20**
실용성	3.51	3.35	3.43	3.43	1.11

바와 같다.

<표 7>에서는 각각의 의복만족도 요인에 대하여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고, 성·신체만족도가 의복만족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집단별로는 의복만족도 전체와 심미성 요인, 경제성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신체만족도가 각각 의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우선 의복만족도 전체에 대해서는 신체만족도가 주효과를 가지고, 성과 신체만

족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이 의복만족도가 높지만 여자는 거의 유사하다. 요인별로 심미성 요인과 경제성 요인에서 신체만족도가 주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심미성 요인에서만 성과 신체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심미성 요인의 경우, 의복 전체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남성은 신체에 만족하는 집단이 유행성 만족도가 높지만 여성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성 요인은 성별과 무관하게 신체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에 만족한 집단이 만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아 의복만족

<표 8> 의복만족도에 대한 성·신체만족도의 영향

독립변인 \ 요 인	의복만족도 전체 F	심미성 요인 F	경제성 요인 F	실용성 요인 F
성	0.02	0.48	0.01	0.13
신체만족도	8.38**	13.01***	8.14**	1.70
성x신체만족도	6.61*	6.43*	2.92	1.48

***p < .001, **p < .01, *p < .05

도 요인 중 심미성에 연관된 사항에서 여성은 신체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항상 유행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지만 경제성 요인에 있어서는 신체 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게 하는데 이 사실은 사후 검증의 집단구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결과는 심미성 요인이 의복에 대한 관심과 상당히 연결되어 여성의 경우 신체 만족에 무관하게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경제성 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맞옷새라든가 옷의 활용도와 같이 신체 치수와 상당부분 연관되어 있어서 신체만족도가 높아지면 의복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하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기성복이 균형잡힌 평균 치수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신체 특성이나 연령별 체형변화가 요구된다³¹⁾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의복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복만족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신체 이미지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련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정적상관이 있다는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부수적인 관심사로 의복에 대한 불만을 질문한 결과 성별에 따라 볼 때 남학생은 가격, 애프터 서비스, 세탁과 관리의 편리성의 순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여학생은 세탁과 관리의 편리성, 애프터 서비스, 가격의 순으로 불만을 표시하여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신체에 만족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도 거의 위의 항목에

대하여 같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의복관심과 의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이 경우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으며, 연구대상자 전체적으로는 신체 중 상체에 대한 만족도가 하체에 비해 높았다. 또한 허약한 신체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의복에 대한 관심도는 신체 만족과는 무관하였으나 성별에 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시에 성별과 신체만족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신체 만족과는 무관하게 모두 의복관심도가 높은 반면 남학생의 경우 신체 만족한 집단의 관심도가 높았다.

셋째, 의복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성별에 무관하게 신체만족도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성, 신체만족도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의복만족 요인 중 심미성 요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였다. 즉 여성은 신체만족도에 무관하게 유사한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나 남성은 신체만족도에 따라 신체 만족이 높은 집단이 의복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경제성 요인의 경우는 신체만족도만이 집단간 차이를 발생시켜 남녀 상관없이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만족도도 높았다. 나머지 실용성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과 신체만족

31) 조길수, 성인여자의 의복치수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의복 불만족 사항은 대개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세탁과 관리의 편리성, 가격, 애프터 서비스 등의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부분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현재 청년기의 학생들이 가진 신체적 자아개념 중 신체만족도는 여학생의 경우 의복에 대한 관심에는 무관하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만족도에 대해서도 요인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대의 이상적 체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복만족도와 그렇지 못한 대상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만족도나 의복관심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직접 소비자 행동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있는 마케팅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또한 신체적 자아와 함께 인간의 자아개념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에 대해 동일한 의복행동을 통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의상사회심리, 서울 : 교문사, 1995.
- 교애란, 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0(4), pp. 667-681, 1996.
- 교애란,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 의복의 수용, 신분상징성, 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구자명, 이명희, 남녀중학생의 외모 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pp. 153-163, 1994.
-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pp. 31-41, 1975.
- 류은정,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백민숙, 청년층의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이연희,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상관 연구 - 이화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이영운,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임숙자,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의복행동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조길수, 성인여자의 의복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홍금희, 의복만족의 종적 연구 - 기대선행 변수에 따른 기대와 제품성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1992.
- Compton, N.H., Image boundaries in relation to clothing fabric and design preference of a group of hospitalized psychotic women. *J. of Home Economics*, 56, Jan. pp. 40-45, 1964.
- Damborst, M.S. and Littrell, M.A., *Clothing Interests and Body Cathexis of High School Cheerleader*. ACPTC Proceedings, Combined Central E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pp. 38-39, 1984.
- Davis, L.L., *Self-Perceived Somototype, Bodycathexis, and Attitudes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ACPTC Proceedings, Conbind Central Eastern and Western Regional Meetings, p250, 1985.
- Haftstrom, J.L. and Dunsing, M.M., Level of Living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pp. 54-65, 1973.
- Kaiser, Susan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90.
-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Macmillan

- Publishing, p.62, 1985.
- Kefgen, M. and Touchie-Specht, P.,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76.
- Labat, K. L.,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 to Wear Cloth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1988.
- McLean, F.P., *The Process of Aging Related to Body Cathexis and the Clothing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Utah State Univ., 1978.
- Richards, E. A. and Hawthorne, R.E., Values, Body Cathexis and Cloth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 of Home Economics*, 3 (3), pp.97-105, 1971.
- Ryan, M.S., *Perception of Self in Relation to Clothing*, In M. E. Roach and J. B. Eicher(eds.),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pp. 247-249), New York: John Wiley, 1965.
- Secord, P.F. and Jourard, S.M., the Appraisal of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Self, *J. of Consulting Psychology*, 17, pp. 343-347, 1953.
- Shim, Soyeon, Lotsiopulos, Antigone and Knoll, Diane S.,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pp. 35-44, 1991.
- Sontag, M. S. and Schla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pp.1-8, 1982.
- Westbrook, R. A. and Newman, J. W., An Analysis of Shopper Dissatisfaction for Major Household Appliance, *J. of Marketing Research*, 15(Aug), pp.456-466, 1978.